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충 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헌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창인 편집인: 우기전 편집국장: 조선근

일어나라 함께 가자!
고난주간 특별부흥사경회

강사는 증경총회장 김덕신 목사, 4월 1일(월) 저녁부터 5일(금) 새벽까지
모든 성도는 빠짐없이 적극 참여하여 말씀의 보습으로
묵은 심령의 밭을 기경하여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기회로 삼아야

교회에서는 금년도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김덕신 목사(대구동부교회 담임, 증경총회장)를 강사로 모시고 고난주간 특별부흥사경회를 갖는다.
이번 특별 부흥사경회의 표어는 '일어나라 함께 가자'(마 26:46)이며 주제성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신 8:3)이다.
특별부흥사경회 기간은 고난주간의 시작인 4월 1일(월) 저녁부터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성금요일 새벽까지인데, 집회는 본당에서 새벽기도회(새벽 5시), 낮공부(오전 10시 30분), 저녁집회(오후 7시 30분) 등 하루 세번씩 있게 된다. 총 11회의 모든 집회에 강사인 김덕신 목사가 말씀을 전한다. 특별부흥사경회의 일정은 아래 표와 같다.
특별부흥사경회를 위해서 교회에서는 이미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조급의 차



강사 김 덕 신 목사
· 대구노회 증경노회장
· 전 대구신학교 교수
· 대안예수교장로회 총회 증경총회장(합동)
· 현재 동부교회 당회장

질도 없이 전 성도들이 함께 은혜받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에 임하고 있다.

특히 교회에서는 새벽집회 후 교회에서 바로 출근해야 하는 성도들과 집이 멀리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아침식사와 저녁식사를 제공하며, 남자숙소(유아부실 교육관 210호)와 여자숙소(영아부실 선교관 102호, 사랑부실 교육관 107호)를 제공할 계획이다.
예수님이 수난을 받으신 고난주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귀한 특별부흥사경회에 단 한 시간도 빠뜨리지 말고 참석하여 성령 충만함 받아 우리의 묵은 심령을 말씀의 보습으로 새롭게 기경하고 심령의 부흥을 일으켜야겠다.
그리하여 "내 몸에 예수 흔적을 가졌노라"(갈 6:17)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그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우며 자기 뒤통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신 저 갈보리 언덕까지 기쁨으로 나아가야 하겠다.

◀ 직원모집 ▶
충헌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함께 일할 성실한 직원을 모집합니다.
1. 자격
세례교인으로서 경비직은 50세 미만, 미화직은 45세 미만의 영육이 건강한 사람
2. 근무부서
· 경비직 0명 · 미화직 0명
3.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 포함)
· 주민등록등본
(기타 서류는 채용후 제출)
4. 서류제출 및 문의
충헌교회 사무국
☎ 552-8200(교 402)

	새벽(05:00)	낮(10:30)	저녁(19:30)
4월 1일 (월)			사회/김창인 목사 기도/김재명 장로 찬양/가브리엘찬양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요 13:36-14:6)
4월 2일 (화)	사회/김덕신 목사 신령한 생수 (출 17:1-7)	사회/이종대 목사 기도/전홍렬 집사 찬양/호산나찬양대 은혜와 은사 (고전 12:4-11)	사회/김찬곤 목사 기도/강은원 장로 찬양/임마누엘찬양대 다윗의 신앙고백 (시 51:1-15)
4월 3일 (수)	사회/김덕신 목사 구름기둥 불기둥 (출 13:20-22)	사회/성봉환 목사 기도/이동명 집사 찬양/호산나찬양대 믿음의 성전과 봉사의 성전 (창 28:10-22)	사회/이홍성 목사 기도/우기전 장로 찬양/할렐루야실로암 정조를 구하라 (사 7:10-17)
4월 4일 (목)	사회/김덕신 목사 믿음과 생활 (약 5:13-20)	사회/김희수 목사 기도/한송규 집사 찬양/호산나찬양대 축복과 복 (창 48:1-7)	사회/김창인 목사 기도/강순용 장로 찬양/아멘찬양대 다윗의 신앙간증 (시 23:1-6)
4월 5일 (금)	사회/김덕신 목사 내 사랑야 (아 6:4-9)		

24시간 연속기도회
3월 22일(금) 정오부터 3월 27일(수) 정오까지 제7교구
3월 27일(수) 정오부터 4월 1일(월) 정오까지 제8교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대각성 기도성회

25(월)~26(화)일 오후 6시, 장충체육관으로 모입니다!

우리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전국 남전대회 연합회(이하 전남련)에서는 장충체육관에서 3월 25-26일 양일간 '나라와 민족을 위한 대각성 기도성회'를 개최하며 본 교단에 속한 모든 교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특별히 이번 대각성 기도성회에는 본 교회 김창인 원로목사가 명예대회장이기도 하다.
곳곳에서 전쟁의 소문과 북한의 상황이 최악에 다다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이때에, 더욱이 4월 11일 이 민족의 일꾼을 뽑는 총선을 앞두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우리 교단 전남련에서 주최되어 개최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대각성 기도성회'에서 그동안 각 자처소에서, 골방에서, 기도굴 속에서 부르짖던 기도의 불씨를 모아 보자. 그리하여 이번 기도회에 큰 불을 일으키어 휴전선을 태우고 저 동토의 땅에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여보자.

· 언제: 3월 25, 26일 양일간
오후 6시부터
· 어디서: 장충체육관



충현강단

● 김창인 목사의 시편 강해 ●

구원의 복을 받은 자의 감사 노래 (시 18:1-50)

시편 18편의 내용을 더듬어 볼 때에 다윗은 놀라운 성도였습니다. 여러 해 동안 환난에 부딪히면서 도망을 다니던 다윗 장군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되고 더 나아가 밖으로 여러 나라 임금들이 다윗 왕 앞에 자진해서 무릎을 꿇고 예물을 바치는 등 국위가 모든 열방 가운데서 드높이 들리는 너무나 좋은 때입니다. 이런 때에 다윗은 교만한 마음이 없이 지금까지 지내온 일을 하나하나 검토해보며 감격이 넘쳐서 하나님 앞에 부른 찬송시입니다.

1.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는 어떠합니까(18:1-19)

(1) 하나님이 다윗의 힘이 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18:1)라고 했습니다. 인생은 길을 가는 나그네입니다. 십 리, 백 리, 천 리, 만 리 계속해서 길가는 나그네 이기에 힘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일터입니다. 일터에서 일하는 일꾼은 힘이 필요합니다. 또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인생은 싸워야 되는 군인이기에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없으면 일을 못하고 남에게 일감 노릇만 하는 폐를 끼칩니다. 땅 위의 많은 사람들은 건강으로, 지식으로, 기술로, 돈으로, 권세로 힘을 삼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힘은 신용입니다. 돈과 권세는 언제 없어질런지 모르지만 신용은 죽을 때까지 간직되며 죽은 다음에도 이름이 남습니다. 신용은 어떻게 지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킵니다. 참 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다윗은 무엇으로 힘을 삼았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알았습니다.

(2) 하나님은 다윗의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이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음이여 저희는 나보다 힘센 연고로다”(18:3, 17)라고 했습니다. 환난을 제목으로 내놓으면서 이런 환난에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는 간증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어디에서 구원하셨습니까?

첫째, 사망의 줄에서 구원하셨습니다(18:4). 둘째, 불의의 창수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18:4). 셋째,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18:5). 넷째, 기도의 응답으로 구원하셨습니다(18:6). 다섯째, 진노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18:7-8). 여섯째, 엄몰하는 물에서 구원하셨습니다(18:16).

하나님이 심판하는 위치가 땅에 있으면 원수들이 가로막을 수도 있고 대항을 하겠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위치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다보시니 숨길 수가 없습니다. 도망다니며 여름에는 비에 젖고 겨울에는 눈과 바람에 얼던 다윗이 이제는 숨은 사람이 아니고 만민이 보는 앞에서 넓고 높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 하나님의 구원의 솜씨가 이것입니다.

2. 하나님의 상급의 표준이 무엇입니까(18:20-27)

“여호와여 내 의를 따라서 상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좇아 갚으셨으니...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 목전에 내 손의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18:20, 24)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데 함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표준(초점)이 있습니다. 성도의 의입니다. 다윗은 물질 따라가지 않고 명예 따라가지 않고 권세 따라가지 않고 의를 따라갔습니다. 다윗이 실력이 모자라서 도망간 것이 아닙니다. 사울 왕을 죽이려던 손바닥 뒤집기보다 쉬웠습니다. 그러나 인간 방법으로 원수 갚은 것은 의로운 일이 아니므로 끝까지 의를 지켰습니다. ‘내가 지금 임금님이 되고 세계 만민에게 존경받는 것은 내가 그때 의를 지킨 대가로 받은 상급입니다. 내 발이 의를 행했습니다. 내 손이 죄악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나 권세에 대한 욕심이나 물질, 명예에 대한 욕심에 매가 안 붙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은 좋습니다. 그러나 내 맘이 묻은 돈이 좋습니다. 내 맘이 묻지 아니한 쉽게 들어온 돈은 쉽게 나갑니다. 내 맘이 묻은 돈,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보다 더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은 재산이 귀합니다. 그러나 남의 눈물이 묻은 돈, 남의 피가 묻은 돈은 내 식구들이 멸망의 피를 쏟는 날을 가져옵니다. 권세가 다 권세가 아닙니다. 내 실력이 있어서 얻은 권세,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은 권세가 좋습니다.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부터 생각했다. 무엇을 가지고 싶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입니까 물어보고 가졌다. 싸우고 싶을 때에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물어보고야 싸웠다. 나는 일거수 일투족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만 생각하고 계획하고 말하고 행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오늘 이 자리를 주셨다’ 이것이 다윗이 상급을 받은 표준입니다.

3. 다윗이 받은 복은 무엇입니까(18:28-50)

하나님을 힘으로 삼은 다윗에게 하나님은 일곱 가지로 복을 주셨습니다.

(1) 만민의 지도자가 되는 복입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어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18:28)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숨어서 살았는데 이제는 등대위의 불이 되었습니다. 내 갈 길을 알고 남의 갈 길도 제 시혜 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있던 곳에 등불도 켜놓기 힘들었던 숨어있던 다윗이 만민의 등불, 만민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18:1) 저는 이 시편 18장 1절을 제일 좋아합니다. 몸도 약하고 지식도 모자라고 힘도 모자라니까 하나님만 사랑해 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사랑할까’ 하시면 안될 일이 없겠다, 그래서 30여년 전에 우리교회 표어로 삼았습니다. 돈보다 권세보다 내 육신의 몸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 자유를 얻는 복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18:29)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원수가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여 숨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담을 뛰어 넘었습니다. ‘뛰어 넘는다’는 말은 자유라는 말입니다. 마음껏 자유롭게 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유! 여러분, 모든 축복 중에 자유 이상의 복이 어디 있습니까? 자유는 복입니다.

(3) 실력자가 되는 복입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떠 떠나시며 내 길을 완전히 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낫활을 당기도다”(18:32-33)라고 했습니다. 시험은 괴롭지만 시험에 합격을 거듭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실력자가 됩니다.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실력자입니까? 칼을 뽑으면 당할 원수가 없는 장군이요, 거문고를 들면 따라올 자가 없는 음악가이고, 북을 들면 비교할 자가 없는 문화가로 모든 면에 실력자가 되었습니다. 암사슴같이 빠른 경주자, 낫활을 당길 수 있는 힘센 장수, 높은 곳에서 호령하는 실력있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4) 성공자의 복입니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운용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로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18:35-36)라고 했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나를 통하여 백성들이 평안히 살게 되고 나를 통하여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되고 나는 이제 세상 떠나도 하나님 앞에 면류관 받게 되었으니 나는 성공했다’

(5) 승리자의 복입니다

“내가 내 원수를 따라 미치리니 저희가 망하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저희를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저희가 내 발 아래 엎드려 지리이다... 내가 저희를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숴뜨리고 거리의 진흙같이 쏘아 버렸나이다”(18:37-42)라고 했습니다. 다윗 왕의 승리는 티끌을 밟는 것처럼 원수를 밟게 되었으니 얼마나 놀라운 승리입니까? ‘티끌을 밟는다’는 말은 무인

지경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원수가 열 곳, 스무 곳을 지키면 마음대로 못가겠는데 그 원수들이 바람 앞에 티끌처럼 달아나 버려서 사람 하나도 없으니 내 마음대로 다닌다. 나는 나를 반대하는 자가 없는 무인지경을 걷는 자가 되었다’ 완전한 승리입니다.

(6) 높은 지위의 복입니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룸에서 건지시고 열방의 으뜸을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쇠미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이다”(18:43-45)라고 했습니다. 다윗 임금님의 지위는 한 나라의 임금이 아닙니다. 열방을 호령하는 대왕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아브라함과 다윗 두 사람이 존경의 대상입니다. 아브라함의 사적을 자랑하는 것이 이스라엘이고 다윗 임금을 자랑하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성경에도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며 아브라함의 이름과 다윗의 이름이 나옵니다. 높은 지위입니다.

(7) 명예의 복입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수하시고 민족들로 내게 복종케 하시오다”(18:47)라고 했습니다. 권세가 높은 사람은 직접으로 욕을 안먹어도 숨은 욕을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다윗 임금은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데도 숨은 욕을 안먹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명예,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존경할 수밖에 없는 명예를 얻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18:1)

저는 이 시편 18장 1절을 제일 좋아합니다. 몸도 약하고 지식도 모자라고 힘도 모자라니까 하나님만 사랑해 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사랑할까’ 하시면 안될 일이 없겠다, 그래서 30여년 전에 우리교회 표어로 삼았습니다. 돈보다 권세보다 내 육신의 몸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만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믿고 의논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절기, 알고 지키면 더 은혜가 됩니다

윤삼중
(목사, 새가죽부 지도)

각 나라마다 명절이 있듯이 교회에도 중요한 절기가 있다. 절기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정성껏 지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절기에 참석한 자들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체험할 것이다. 절기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과 각종 축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록한 제사를 드리는 성별된 기간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들을 가족적, 지파적, 국민적 축제로 성별되게 지켜왔다.

필자는 이 지면에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오던 절기들을 잠시 접어두고 신약시대에 초대교회가 지켜오던 초대교회 교회력에 따른 절기 중에서 특별히 부활절을 앞두고 부활절을 전후로 해서 지켜오는 신약시대의 중요한 절기인 사순절에서 오순절에 이르는 교회 절기들의 의미, 기간, 지켜지는 전통, 준수사항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서 절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받으실만한 절기를 드릴 수 있는 데 미력하나마 도움을 주고자 한다.

사순절

사순절이란 부활절 전에 금식하는 40일간을 말한다. 사순절을 가리키는 40일이라는 용어는 니케아 종교법에 나온다. 그리고 40이라는 숫자는 광야 생활 40년, 유다족속의 죄악을 40일간 누워서 담당했던 에스겔, 그리고 특히 예수님 자신이 40일간의 금식에 의해 분명히 시사해 주고 있다. 초대교회는 사순절 금식을 6주 동안에 지켰는데 주일날은 제외되었기 때문에 36일 금식기도를 하였고, 수세기 동안 사순절 기간동안에 금식의 준수는 엄격하였다. 그러나 3세기에 들어오면서 금식기간은 대체로 2일이나 3일을 초과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사순절은 모든 축제나 각종 오락을 금하고, 자선을 베풀며, 평소보다 더 많은 금식기도와 예배를 드렸다. 우리는 사순절을 지킬 때 단순한 행사나 교행주의 차원에서 지키면 안되며, 오직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말씀과 기도으로 성결케 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종려주일(고난주간)

종려주일은 요한복음 12장 13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승리의 입성을 하실 때 종려나무 잎사귀를 사



용했다는 데서 유래했다. 종려주간은 부활절 전 1주일의 기간을 말한다. 종려주일은 오후 1시에 감람산에 있는 교회에서 찬송과 화답송을 부르고 교훈서를 낭독함으로써 시작된다. 이 의식의 특징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라고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환호성을 부르며, 한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몇 차례 행진을 한다. 아이들은 손에 종려 가지와 올리브 가지를 손에 들고 목회자의 뒤를 따랐고, 목회자는 주님을 상



징하여 나귀를 타고 갔다.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종려주일은 애도의 날이 아니라 예루살렘성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철저한 축제의 날로 지켜졌다. 이 날에 낭독된 서신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11절이었다. 종려주일은 사순절을 마친 후에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주일날에 드려지는 예배이다. 그래서 종려주일은 애도와 엄숙한 분위기도 좋지만 승리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온 교회가 찬양과 축제의 날이 될 수 있으면 더욱 바람직한 절기에배가 될 것이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왕으로 영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찬양했듯이 평소의 예배의 형식에서 발전시켜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예배준서와 더불어 찬양이 중심이 되는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부활절

우리 주님의 부활절은 크리스마스와 더불어 교회에서 지키는 가장 즐거운 축제이다.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며, 십자가가 구원의 시작이라면 부활은 구원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제자들의 설교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었다. 부활절은 예수께서 수난을 당하셨으로써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교회를 낳으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정해진 절기이다.

부활이라는 말은 '일어난다', '살아난다'라는 의미로서 죽은 사람의 몸과 영혼이 되살아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뜻한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에 기록된 나사로와 여타 인물들의 살아난 것처럼 단순한 소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원한 영광으로 부활하셨다(로 6:9-10; 빌전 1:21). 예수님의 부활은 구원의 첫 열매이며, 미래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델이며, 성도들의 부활의 보증이 된다(고전 15:20; 살전 4:14).

성도들에게 가장 기쁜 날은 언제인가? 바로 부활절이다. 우리를 붙잡고 있던 흑암의 세력들, 우리를 죄와 사망의 사슬 아래 꼼짝 못하게 했던 그 권세들이 깨어져 나가



고, 사망, 저주,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한 날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내 부활이 되어야 하며, 우리는 부활의 축제에 함께 참여하여 감사와 찬양의 절기로 지켜야 한다.

오늘날 부활절의 의미가 변질되며, 형식적인 절기에서 벗어나 성도들이 영광의 부활을 기대하며, 부활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부활 찬양제, 뮤지컬, 각종 행사를 실시하여 부활의 축제에 온 성도들이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부활절 주일예배에 감사헌금을 드리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는 의미로 성찬식을 거행하는 데 이것은 매우 좋은 전통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깨끗한 흰옷을 입고 부활절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께 축제의 예배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활절을 단순히 교회행사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온 가족이 모여 부활의 축제를 가지며, 민족적인 부활절 축제로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승천절

승천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의 해석에 의하면 '올라가다', '들리움을 받다'라는 의미인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영광을 입으신 상태로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심을 말한다. 예수님의 승천은 구원의 완성을 보여주며,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만유의 주로 인정하심과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만국에 보여주는 귀중한 사건이다. 예수님의 승천은 구약의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이미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후에 하늘로 올라간 에녹, 불발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구약의 선지자인 엘리야는 승천의 역사성을 뒷받침해 준다.

승천에 대한 예언은 구약성경에 많은 예언이 있었으며(시 110:1; 시 45:7; 사 62:2-3) 예수님께서도 친히 승천에 대한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요 6:62; 7:33; 16:5, 28). 또한 예수님은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장차 예수님이 영화로운 모습으로 승천하실 것을 보여주셨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

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후에 40일동안 지상에 머물면서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을 찾아가서서 부활의 확신을 심어 주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그의 말씀대로 영광스러운 구름을 타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다(눅 24:50-51; 행 1:9-11).

예수님의 승천의 의미는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보여주시며, 승리의 확신을 주신다. 또한 예수님이 영화로운 몸으로 승천하신 것같이 우리 성도들도 주의 재림때에 신랑되신 예수님과 함께 영화로운 몸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오순절

이 절기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두번째로서 유월절에 시작한 주기의 기간을 끝맺어 준다.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 나라에 의해 파괴된 이후로 유대인들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절기의 행사를 거행하였다. 유월절 의식을 거행하는 중에 소산의 첫 열매인 보리단을 바친 후 50일째 해당하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칭하였다. 이 절기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보리 수확으로 시작하여 밀 추수로 끝나는 곡물 추수의 전 기간인 7주간의 추수기를 가리켜 칠칠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이 절기에 첫 이삭인 보리를 드리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도 한다. 이 절기는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로 묘사되었고, 추수기의 완료를 기뻐하고 감사드리는 명절이다.

이 절기에는 성회로 모였기 때문에 평상시의 노동을 금하였고, 이스라엘 남자는 성전에 올라가 곡식단의 일부를 드리며, 흙없는 수양을 번제로 드리면서 감사하였다.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강림하셨기 때문에(행 2:1)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건의 중요성을 비추어 이 절기의 의미를 강조한다.

오순절 성령강림사건은 하나님께서 첫 열매되신 흙없는 어린양인 예수님을 기쁘게 받으시고 구원의 선물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러므로 기독교



는 오순절의 절기를 성령강림 절기로 지키면서,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성령충만함을 받기 위해 기도하기를 힘쓴 것같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사순절부터 오순절에 이르기까지의 절기의 의미를 잘 생각하시고 금번 부활주일을 맞이하시면 더욱 뜻깊은 절기가 될 것이다. 단순한 교회행사로 끝나는 부활절이 되지 말고, 내 자신이 예수님의 부활의 축복에 직접 참여하고 부활의 은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아직도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고 죄와 사단의 권세에 고통을 당하는 이웃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토막소식

◆ 영아부는 3월 31일(주일) 성경이 야기대회를 펼친다. 엄마와 함께 웅알웅알 외운 성경이야기를 발표한다.

◆ 중등1부는 오늘(24일) 전도특강을 실시한다. 주제는 '사영리 사용법에 대하여'이며, 강사는 김희수 목사이다.

◆ 대학부 봉·공·방(봉천동 공부방)에서는 봉천5동 재개발지역 아이들의 학업을 돕고 이들을 품고 기도하며 섬길 지체들을 계속 찾고 있다. 모임은 매주 월요일(오후 4시 30분), 수요일(오후 5시)에 있고(이들 중 하루 선택), 모임장소는 지하철 2호선 봉천역 4번 출구앞이다. 문의는 ☎ 536-3966으로 하면 된다.

◆ 청년1부는 오늘(24일) 이두관 원로전도사를 모시고 결혼특강을 교육관 507호에서 갖고, 3월 26일(화)에는 명동에서 명동찬양팀 주최로 총동원전도로 모인다. 또한 4월 5일(금)에는 통독수련회를 교육관 507호에서 개최한다. 5일(금) 새벽기도 후 8시부터 시작될 이번 수련회 기간동안 신약을 통독한다.

◆ 장년2부는 강지용 교수(이화여대

예방의학 교실)를 모시고 특강을 실시한다. 날짜는 3월 31일(주일) 오후 12시 30분, 장소는 교육관 314호,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건강지식'이다.

◆ 새가정부에서는 오늘(24일) 새가정부에 재직된 모든 회원들이 출석하는 총동원 주일로 지키며 각 반별찬송가 부르기대회를 연다.

◆ 예신부는 제1회 찬송가 반별부르기대회를 개최한다. 예신부에서 함께 공부하며 하나된 수강생들이 이제는 입을 모아 찬송가 반별부르기대회를 연다.

◆ 선교위원회에서는 1/4분기 전체 모임을 3월 29일(금) 오후 6시부터 만나홀(선교관 지하1층)에서 갖는다. 대상은 ① 선교위원회 위원 전체 ② 실행위원 전체 ③ 선교회비를 작성하고 내신 분 ④ 각 교회학교 선교담당 교사 ⑤ 선교에 관심있는 분이다. 회의내용은 1/4분기 선교 업무보고와 기도회이다.

◆ 가브리엘찬양대의 미혼자 모임이 3월 30일(토) 오후 4시에 칼빈홀에서 모인다.

◆ 실로암찬양대에서는 고난주간 음악예배(4월 5일, 금요일)를 위해 매주일 나사렛홀에서 찬양연습을 하고 있다. 실로암 전 찬양대원의 참여를 바라고 있다.

찬양연습 시간은 매주일 찬양예배 후.

◆ 주부교양강좌 준비기도회가 오늘 오후 3시 30분 갈릴리홀에서 있다. 마리아, 루디아, 에스더, 한나전도회 지회장, 부지회장은 모두 참석해야 한다.

사랑의 수화교실

오늘 오후 3시

교육관 109호실에서 개강

에바다부에서는 오늘(24일)부터 7월 4일까지 15주 과정으로 초·중·고급반 수화교실을 개설한다. 특히 이번에는 지난해와는 달리 구역 일꾼들의 참여를 돕기 위해 수요일반을 추가로 준비하였다. 청각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돕고 청각장애인에 대한 선교 활성화를 위해 성도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참여가 있기를 바라고 있다.

• 과정 : 주일반 오후 3시 ~ 5시

(초·중·고급반)

수요일반 오후 1시 ~ 3시(초급반)

목요일 저녁 7시 ~ 9시(초·중급반)

• 수강료 : 1만원(교재대 포함)

• 신청 : 에바다부 교사실

• 강사 : 이준우 강도사 외

예비신랑신부교육부 제4기 수강생 모집

예비신랑신부교육부(부장 송환창 장로)에서는 아래와 같이 96년도 제4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1. 수강 대상자

① 본 교회 교인으로서 결혼을 준비중인 남녀

② 타 교회에 출석중인 자로서 본 교회에서 결혼예식을 하고자하는 남녀

2. 교육기간

4월 6일(주일) ~ 5월 26일(주일)

3. 교육내용

성경적 결혼과 가정관에 대한 강의 및 신앙지도



◆ 참 제자와 청지기를 성경인물에서 찾으며

제자로서, 청지기로서

조요셉

(청년2부 면회회장)

2월 월례회에서 겨울수련회 300명 참석을 목표로 정하고 준비에 들어갔다. 전도부에서는 4000매의 홍보지 배포와 각 전도회 및 기관에 참석 협조를 부탁했다. 찬양부에서는 찬양대 구성에 착수하여 40명중 20명은 1, 2, 3부 찬양대중 30대 찬양대원들에게 협조를 받기로 하고 편집부에서는 30대들의 주소확인과 함께 홍보지 우편발송을 하기도 했다.

한 주일 전부터 임원 모두가 아침 금식기도를 하기로 하고 더욱 기도에 힘쓰며 준비를 했으나 공교롭게도 노회 여전도회 총회, 양육위원 수련회와 겹쳐 300명 참석 목표에 어려움이 있었다.

첫째 날 참석 165명. 더 많이 기도하라는 뜻으로 알고 따뜻한 겨울 3월 11일 김경진 목사님(기독신대 교수)을 모시고 갈릴리홀에서 수련회는 시작되었다.

누가복음의 '제자도와 청지기도'란 주제의 수련회는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한 4인조 살롬찬양팀(미혼자팀)의 뜨거운 찬양 인도로 시작되어 목사님 말씀에 시간이 흐를수록 은혜의 바다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하였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눅 14:27).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12제자뿐만 아니고 마리아, 마르다와 같은 제자도 있었으며 마리아는 배우는 여자의 이미지요, 마르다는 실천하는 제자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고 전도여행으로 지쳐 피곤한 예수님과 제자 일행에게 음식을 배풀고자 애쓰는 사랑의 실천자의 모습으로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지식과 실천이 겸비한 모습이 제자의 바른 자세라고 강조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가슴에 와 닿았다.

둘째날, 은혜롭고 아름다운 찬양대가 '우리 주님께'의 합창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문을 열어 놓더니 어제보다 여유있는 목사님 말씀 보따리는 끊이지 않고 풀어지는데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발은 울에 처하리나"(눅 12:46), 청지기의 특징 세 가지를 들어 자신의 소유나 재산이 없고, 청지기로서 의무수행에 책임이 있으며, 평가와 심판이 따른다고 말씀하셨다.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 재물, 재능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 동안 맡겨준 모든 것은 주인에게 청산반는 충성스런 청지기처럼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만 사용해야 할 것이다.

존 웨슬리의 재물관을 소개하시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고 재물을 모으며, 최대한 절약하며, 구제에 힘쓰라는 말씀에 모두 숙연해졌다. 기독교의 작은 이개주의라고 선언하시고 경건이란 곧 고아와 과부를 구제하고 도와주는 것(약 1:27)이라고 소개하면서 구제사업에 힘쓰는 것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중에 하나라고 강조하셨다.

열심히 노력하여 불로소득을 지양하고 정당하게 재물을 축적하고 겸손한 생활로 소유물을 나눠주는 청지기야말로 충성스런 청지기라는 결론의 말씀에 어 느덧 시간은 21시를 지나고 있었다. 겨울수련회에 도와주신 모든 분들과 회원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오, 하나님! 여름수련회에는 300명 영혼들을 보내주소서.

아버지애(愛) 마음은

이수현

(고등부 교사)

수련회 몇날을 앞두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임. 그 뒤에 오는 마음의 무거움. 생각한 끝에 아니다 싶어 몇가지 짐을 챙겨 버스를 탔다. 마음에 간절히 바랬음에도 웬지 확 다가오지 않는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원에 도착했을 때부터 마음은 완전히 바뀌었다.

고등부 학생들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모습과 한근수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되어 마음으로 받아들여졌고 나 자신도 백년 잘 왔다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감사로 화답하였다. 우리 고등부 전체가 무척이나 좋아 보였다.

일상 생활에 배어 있던 부분부분까지도 치유하시는 주님의 모습과 많은 고등부 학생들의 활기찬 행동들이 무척이나 담배해 보였다. 학생들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모습 속에서 주님의 역사하심이 너무 은혜스러웠음을 고백한다.

하나에서 열까지 헤아려 통치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에서 맺어지는 열매들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사랑의 힘은 너무 위대하고 아름다워 보였다.

이 시간, 사랑스런 우리 고등부 학생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나는 충현의 많은 고등부 학생이 적어도 주일만큼은 온전히 성수주일 한다면 더욱더 많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아쉬운 점은 고등부다 보니 공부에 아직도 치우쳐 주일성수보다 학원이 급선무로 생각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인 것을 보며 적어도 주일은 아버지의 사랑에 흠뻑 취하기 위해 주일을 맞이했으면 싶다. 그런 생활 속에서 더욱더 고등부가 활성화되고 한걸음 더 나아가 충현의 대학부가 크게 되고 청년부에 발전이 되리라 본다. 주님의 마음도 이 마음이 아닐까 싶다.

앞으로의 바램이라면 모두가 살아 움직이는 우리의 고등부,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알 뿐만 아니라 실천하는 우리 고등부가 되어 주길 간절히 바란다.

놀라운 일

조중민(집사, 중등2부 교사)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만왕의 왕으로 성육신하시니 놀라운 일 아닌가.

주님의 보혈로 내가 새 생명을 얻다니 놀라운 일 아닌가.

나 때문에 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릴 수 있다니

놀라운 일 아닌가.

나 때문에 채찍을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다니

놀라운 일 아닌가.

나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니

놀라운 일 아닌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주를 살리셨으므로

부활을 보증하는 첫 열매가 되셨으니

놀라운 일 아닌가.

승천하시면서 땅끝까지 나아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하셨다고 하시니

놀라운 일 아닌가.

지금도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재림을 준비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의 죄를 예뻐하고 계시며

오늘도 나를 위해 기도해주시니

놀라운 일 아닌가.

재림과 동시에 성도에게는 영생,

악인에게는 영원한 사망이 있으니

놀라운 일 아닌가.

이 놀라운 일들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주님을 위해 살아야겠다. 마라나타!